

62년 세월 견뎌온 전주 보물 '홍지서림'

한 권의 책이 만들어낸 기적 · 문화의 등불... 서점 전통 · 명맥 이어가

전주 팔달로 옛날 미원탑 사거리에서 동문 사거리 방향으로 경원동 골목길을 걷다 보면 특이한 글씨체의 아름다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홍지서림'이라 적힌 그 간판 뒤로는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전주 사람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문화의 성지이자, 변화하는 시대를 묵묵히 견뎌온 작은 기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1963년 전병로 사장이 문을 연 홍지서림은 대한민국 종합서점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서점으로 문인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마산의 '학문당' 다음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한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몰아치며 많은 사업장들이 폐업하게 될 때, 홍지서림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때 귀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전북 출신 소설가 양귀자 작가였다. 1998년, 그는 망해가는 서점을 인수해서 인문학 위주의 번듯한 종합서점으로 키웠다. 그의 결단 하나가 전주의 문화 명맥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현재는 양 작가의 조카인 양계영 사장이 3대째 경영을 이어받아 경원동 본점과 송천점, 효자점, 아중점 3곳의 본점을 운영하며 서점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서점에 거의 손님이 없는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기자와 만난 강성수 판매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홍지서림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수 많은 전주 시민들이 이곳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홍지서림은 전주 시민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 왔다. 과거에는 서점 인근 건물 2층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사람들은 책을 사러 왔다가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도 함께 즐겼었다. 방송통신대학교



홍지서림 전경

재 판매처로도 활용되어, 꿈을 포기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학습 동반자 역할을 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강 부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작지만 큰 기적, '책공' 정책의 힘
하지만 서점경영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형서점 체인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지역 서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 서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기업들도 전주에 진출했다가 철수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럼에도 홍지서림이 살아남아 버틸 수 있었던 건 전주시의 혁신적인 정책 덕분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책공(Book-Koong)' 제도는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살 때 20%까지 할인해 주는 획기적인 지원책이다.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으니 시민들이 다시 저희를 찾아와 주세요. 문화누리카드, 에듀페이 같은 정부 지원정책

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든다.

서점 경영이 예전과 다르게 혹자 경영이 쉽지 않다. 아동 도서 판매가 예전 같지 않고, 전집류 구매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강성수 부장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점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책을 만난 독자들이 지식을 얻고, 전주가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린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서점으로 남고 싶습니다. 홍지서림이 있는 한, 전주의 문화는 계속 살아 숨 쉴 거예요."

62년을 견뎌온 작은 서점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바로 책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다. 홍지서림은 오늘도 전주 시민들을 기다리며, 새로운 63번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홍지서림이 전주에 있는 한 전주 시민들은 책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만호 기자

관악 · 현악 아름다운 조화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 스물아홉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6일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6일 오후 7시 박물관 옥외트라에서 스물아홉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더 뉴바르크 컴퍼니'와 '톡스 목관앙상블' 두 팀을 초청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악과 현악 연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더 뉴바르크 컴퍼니는 바로크 음악과 타 예술장르,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고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 최현정을 비롯해 바로크 첼로 장혜진, 하프시코드 최현영이 함께 '바로크악기'로 듣는 춤과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일곱 곡을 선보인다.

또한 톡스 목관앙상블은 오보에 손연지, 플루트 김선일, 바순 이준철, 클라리넷 김종철 등 목관악기로 모인 네 명의 연주자가 함께한다. 재즈와 탱고, 익숙한 영화음악 등 시대를 초월하는 다채로운 음악 여섯 곡을 통해 목관악기들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중주를 연주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의 무장에 창극 '지지지'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공동주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에 선정되며 경북 · 전북 · 충청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무장에 창극 '지지지' 순회공연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 선정

국립민속국악원의 무장에 창극 '지지지'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공동주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에 선정되며 경북 · 전북 · 충청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지지지는 판소리 '흥부전'을 제비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단원 김대일이 연출과 각색을, 방수미가 작창을 맡아 국악연주단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집약했다.

또한 공연 장면과 진행을 설명하는 음성해설, 국 · 영 · 중문 자막, 배우 대사 · 노래가사 · 음성해설의 한국수어 · 국제수어 제공을 통해 언어적 · 문화적 장벽을 허문 배리어프리 작품으로 선보인다.

첫 무대는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9월 5일(금) 19:30과 6일(토) 15:00, 두 차례 공연을 올리며, 경주 APCC 개최를 축하하고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기간인 9월에 맞춰 진행된다.

이어 전북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1월 8일 2회, 충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11월 15~16일 2회 공연이 이어진다. 모든 공연은 전석 1만 원이며, 예매와 문의는 티켓링크 또는 전화(063-282-2527, 문화통신사 협동조합)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11월 30일까지 공예 특별 기획전 개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공예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1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가을빛으로 가득 찬 공예 이야기-만추정담(滿秋情談)' 판매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봄을 담은 공예-춘화유생(春花流生)'(3~5월), '여름의 바람, 공예로 빛나다-청풍시화(淸風時華)'(6~8월)에 이은 세 번째 특별전으로, 가을의 정취 속에서 공예가 지

닌 섬세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기획전 상품들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예품으로 계절 소품과 함께 감각적으로 진열하고, 낙엽이 떨어진 정원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기획전 기간에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물(용기잔, 스카프 중 선택)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